

치 사

성도는 “육도를 윤회하는 굴레로부터의 해방”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이 가르침은 낡은 사회적 제도나 관습,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성도는 무명을 끊고 태양같이 밝은 지혜를 밝히는 영원한 빛인 것입니다.

불기 2554년 부처님 성도하신 날을 맞이하여 불교음악협회에서 준비한 ‘2010성도 기념음악회’는 부처님 성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창작 찬불가를 개발하고 초연(初演)하는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불교음악 개발에 앞장서는 ‘불교음악협회’ 회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.

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. 세상의 중심 가치들이 모두 문화를 통해 구현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문화는 이미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의 원천이자 사회발전을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문화시대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음악인 여러분의 노고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소중합니다. 여러분의 노력은 불교 수행과 포교의 가장 큰 자산이며 경쟁력입니다. 앞으로도 불교음악 발전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

뜻 깊은 음악회를 마련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,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축원 드립니다.

불기2554(2010)년 1월 30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